WNBA 워싱턴 미스틱스와 계약한 강이슬이 25일(한국시간) 미국 게이트웨이센터아레나에서 열린 프리시즌 애틀랜타 드림전에서 16분 동안 8득점·2리바운드·1어시스트를 수확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사진출처 | 워싱턴 미스틱스 SNS

‘WNBA 도전’ 강이슬 힘찬 출발 프리시즌 경기 16분간 8점·2R

강이슬(28·워싱턴 미스틱스)이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프리시즌 무대에서 힘찬 첫발을 뗐다.

강이슬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게이트웨이센터아레나에서 벌어진 애틀랜타 드림과 2022 WNBA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 16분을 소화하며 3점슛 2개 포함 8점·2리바운드·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워싱턴은 애틀랜타에 69-88로 졌다.

강이슬은 1쿼터 6분을 남기고 마이샤 하인스-앨런과 교체돼 코트를 밟았지만, 익숙치 않은 무대에 다소 긴장한 듯 턴오버를 범하기도 했다. 슛 시도도 없었다.

4쿼터 시작과 동시에 다시 코트로 돌아온 강이슬은 종료 6분53초를 남기고 리네 하워드의 반칙으로 얻은 자유투를 성공하며 첫 득점을 신고했다. 종료 6분여를 남기고는 샤토리 워커-킴브루의 3점슛이 불발되자 공격 리바운드를 건져내며 첫 리바운드를 따냈다.

종료 4분여를 남기고부터 강이슬의 무대가 펼쳐졌다. 3분52초를 남기고 메건 구스타프손의 미들슛을 어시스트했고, 이후 사이드에서 3점슛 2개를 꽂아넣으며 강점을 뽐냈다. 2개의 3점슛 모두 케이티 벤잔의 어시스트가 한몫 했다.

국내 무대에선 청주 KB스타즈 소속인 강이슬은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에서 팀을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통합우승으로 이끈 뒤 워싱턴으로 향했고, 프리시즌 첫 경기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자랑하며 기대를 키웠다.

워싱턴은 28일 새벽 홈구장인 세인드엘리자베스아스트엔터테인먼트앤스포츠아레나에서 미네소타 링스와 2번째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며, 5월 7일 인디애나 피버와 홈경기를 시작으로 정규리그 개막전에 돌입한다. 강이슬이 WNBA 정규리그 경기에 출전하면, 이는 정선민(은퇴)과 박지수(KB스타즈)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3번째 사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WKBL KB스타즈 통합우승 기념행사…KB그룹 임직원 총출동

KB스타즈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통합우승 기념행사를 열었다. 정규리그 23승1패로 압도적 우승을 차지한 KB스타즈는 우리은행과 챔피언결정전에서도 3전 전승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1 김완수 감독(가운데)과 선수단이 환한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했고 2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직접 행사를 챙겼다. 3 선수단을 대표한 김완수 감독이 통합우승 기념 소감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KB 원팀 저력 보여줬다”

구단주 KB국민은행 이재근 행장 “롱런팀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김완수 감독 “윤종규 회장님 등 KB가족들 덕분”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 통합우승 기념행사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등 많은 임직원이 참여해 선수단의 통합우승을 축하했다. KB스타즈의 구단주인 KB국민은행 이재근 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고참 선수부터 최신참 선수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원 팀(ONE TEAM) KB’를 이뤄냈기 때문이 우승한 것 같다. 윤종규 회장님도 수년간 첫 번째로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모든 관심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통합우승의 결과를 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도 KB스타즈를 확실히 지원해 롱런 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완수 KB스타즈 감독은 “윤종규 회장님, 이재근 행장님 KB 가족분들 덕분에 좋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V3, V4까지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KB스타즈는 2021-2022시즌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전승을 거두며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4강PO서 끝났지만…‘슈퍼루키’ 증명한 오리온 이정현

PO시리즈 16.7점 2R 2AS 고른 활약
김선형·최준용 대결도 밀리지 않아
큰경기 강한 면모…2번째 시즌 기대

고양 오리온의 신인 가드 이정현(23·187cm)의 첫 플레이오프(PO) 도전은 4강에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슈퍼 루키’라는 평가를 증명해내 다음 시즌을 더 기대케 했다.

오리온은 24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 4강 PO(5전3승제) 3차전에서 81-86으로 패해 시리즈전적 3연패로 챔피언결정전 진출권을 내주며 시즌을 마감했다. 하지만 이정현의 활약은 눈부셨다. 에이스 이대성이 홀로 분전하는 상황에서 이정현은 승부처가 된 4쿼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지 않기 위해 적극 공격을 시도하는 등 신인답지 않은 경기력으로 팀을 지탱하는 모습이었다.

이정현의 4강 PO 3차전 개인 기록은 13점·3리바운드·2어시스트·1스틸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그는 평균 27분여를 소화하며 16.7점·2.0리바운드·2.0어시스트·2.0스틸 등으로 고르게 활약했다. 3점슛 성공률 33.3%를 포함해 필드골 성공률 48.5%를 해낼 정도로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기대만큼의 활약상은 아니었다. 개막 직전에 팀에 합류한 터라 준비 시간이 넉넉지 않았다. 게다가 팀 내에 이대성, 한호빈 등 좋은 가드 자원들이 많아 출전시간도 다른 신인선수들에 비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신인상 경쟁에서도 다소 밀렸다. 그러나 이정현은 더 중요한 PO무대에서 신바람을 냈다. 울산 현대모비스와 6강 PO에서는 오리온이 3연승을 거두는데 일등 공신이었다. 수비로 상대 가드와의 대결을 압도했다. 4강 PO에선 리그를 대표하는 김선형, 최준용과의 대결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이정현은 휴식을 마치면 올 여름부터 팀과 함께 2번째 시즌을 준비하게 된다. 조금 더 여유로운 준비 과정을 거칠 이정현의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24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 PO 3차전에서 상대 최준용의 수비를 뚫고 과감하게 골밑을 파고드는 이정현. 김종원 기자 | won@donga.com

프로야구 기록실 〈25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평균자책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SSG	20	16	4	0	0.800	-	1승	0.253	2.68	0.889	93	54	11	10	8
2	LG	20	12	8	0	0.600	4.0	1승	0.251	2.98	0.333	83	66	12	16	11
3	두산	19	11	8	0	0.579	4.5	1패	0.243	3.14	0.455	63	69	6	14	22
3	롯데	19	11	8	0	0.579	4.5	3승	0.272	3.05	0.444	80	71	13	5	18
5	키움	20	11	9	0	0.550	5.0	1패	0.221	3.30	0.455	68	78	15	14	15
6	KIA	19	9	10	0	0.474	6.5	1승	0.248	3.14	0.500	82	78	8	6	26
7	KT	19	8	11	0	0.421	7.5	1패	0.246	3.20	0.300	71	70	12	14	14
8	삼성	20	7	13	0	0.350	9.0	3패	0.236	3.90	0.333	85	89	9	17	21
8	한화	20	7	13	0	0.350	9.0	1패	0.233	4.08	0.556	73	92	9	25	24
10	NC	20	6	14	0	0.300	10.0	1승	0.218	4.28	0.364	58	89	6	8	13

메이저리그 〈25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Y	10	6	1	미네소타	8	8	1	시애틀	10	6
1	토론토	10	6	2	클리블랜드	7	8	2	LAA	9	7
3	탬파베이	9	7	3	시카고W	6	9	3	오클랜드	9	8
4	보스턴	7	9	3	디트로이트	6	9	4	휴스턴	7	8
5	볼티모어	6	10	5	캔자스시티	5	9	5	텍사스	5	10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M	12	5	1	St.루이스	9	5	1	LAD	11	4
2	마이애미	7	8	2	밀워키	10	6	2	샌프란시스코	11	5
3	애틀랜타	7	10	3	피츠버그	8	8	3	콜로라도	10	5
4	필라델피아	6	10	4	시카고C	7	9	4	샌디에이고	10	7
5	워싱턴	6	12	5	신시내티	3	13	5	애리조나	6	10

•경기결과

오클랜드	2 - 0	텍사스	LAA	7 - 6	볼티모어
탬파베이	5 - 2	보스턴	콜로라도	6 - 2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6 - 4 〈연장10회〉	시카고W	시애틀	5 - 4 〈연장12회〉	캔자스시티
LAD	10 - 2	샌디에이고	뉴욕M	6 - 2	애리조나
피츠버그	4 - 3	시카고C	신시내티	4 - 1	St.루이스
밀워키	1 - 0	필라델피아	뉴욕Y	10 - 2	클리블랜드
샌프란시스코	12 - 3	워싱턴	마이애미	5 - 4	애틀랜타
휴스턴	8 - 7 〈연장10회〉	토론토			

해외축구 〈25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브라이튼	2 - 2	사우스햄튼	번리	1 - 0	울버햄튼
첼시	1 - 0	웨스트햄	리버풀	2 - 0	에버턴

•르샹피오나 경기결과

클레르몽	2 - 2	앙제	브레스트29	1 - 0	메스
낭트	5 - 3	보르도	니스	1 - 0	트루아
릴	1 - 0	스트라스부르	스타드렌	5 - 0	로리앙
마르세유	1 - 0	스타드드랭스			

NBA 〈25일〉

•경기결과

마이애미	110 - 86	애틀랜타	뉴올리언스	118 - 103	피닉스
덴버	126 - 121	골든스테이트	밀워키	119 - 95	시카고

핫 포토.jpg “조코비치, 시즌 첫 우승은 다음에”

남자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왼쪽)가 25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ATP 투어 세르비아 오픈 단식 결승전을 마친 뒤 전 코치진의 품에 안겨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조코비치는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블로프에 1-2로 패해 시즌 첫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베오그라드(세르비아) | AP뉴시스

경기예고

프로야구 〈26일〉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IA (양현종)	〈수원〉	KT (데스파이네)	LG (플럿코)	〈대구〉	삼성 (뷰캐넌)
오후 6시30분, SBS SPORTS			오후 6시30분, KBS N SPORTS		
NC (루친스키)	〈잠실〉	두산 (스탁)	SSG (폰트)	〈사직〉	롯데 (김진욱)
오후 6시30분, MBC SPORTS+			오후 6시30분, SPOTV2		
키움 (안우진)	〈대전〉	한화 (박윤철)			
오후 6시30분, SPOTV					

아마추어 경기 〈26일〉

테니스 ●안동오픈(안동시민운동장) ●국제테니스연맹(ITF) 영월국제주니어대회(영월스포츠파크)

씨름 ●제76회 전국선수권대회(9시30분·인제군 원통체육관)

사격 ●제5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대회(9시·대구국제사격장)

하키 ●41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대회(9시·동해썬라이즈 국제하키경기장)

핸드볼 ●제77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10시·익산팔봉체육관, 원광대체육관, 전북제일고체육관)

볼링 ●아산 충무공컵 여자프로대회(9시·아산 로얄 볼링경기장)